

자기소개서

소 속	검바위초등학교	직 위	교감	성 명	박귀옥
-----	---------	-----	----	-----	-----

꿈

‘갈매기 조나단’에게

초등학교 5학년말 인천으로 이사 온 저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충청도 사투리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고 거의 70명이 넘는 다인수 학급의 비좁은 공간과 책상 하나에 3명이 앉아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교실 한 쪽에 있던 책들과 절친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터라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같은 책들을 읽고 또 읽으며 책을 통해 마음속에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빨강머리 앤’과 ‘헬렌 켈러’를 읽으며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을 준 책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꿈을 쫓아 하늘을 나는 새였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명언을 알려준 조나단 스승의 말처럼 나도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겨내리라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창 예민하던 시기였던 나는 좌절감과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사회시간에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한 마디가 저의 마음에 송곳처럼 와 닿았습니다.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부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고 인생의 목표를 일깨워 준 스승님의 그 말씀 한 마디와 갈매기의 꿈을 통해 조나단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의 한마디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기도 하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아이들에게 즐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책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며 평생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주도록 할 것이다. 또한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며,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 따뜻한 교장이 될 것이다.

열정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열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는 단어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저는 ‘잘 가르치는 멋진 교사’가 되리라 다짐하였으며, 아이들 앞에 섰을 때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1990년 초반 양평초에 근무할 때 걸스카우트를 맡아 아이들과 여기저기를 다니며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친구같은 교사로, 방과후에는 합창부를 맡아 열심히 지도한 결과 도대회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업무였지만 즐겁게 수행하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져 ‘나에게 교직은 천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을 보노라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솟아올랐고, 덕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업공개를 대여섯번씩 하는 수업 전문교사가 되었습니다. 도장학지도시 수업공개, 수업실기대회 참여, 대규모 참관수업 등 수업 공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즐거웠으며 직접 구안한 교수학습자료가 일반화 될 때에는 너무나 뿌듯하였습니다. 수업을 통해 더욱 자신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맡은 아이들은 단 한명도 학습부진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수업실기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벽지 학교로 가게 되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교생 50여명의 분교 학생들은 외부의 문화적 혜택이 거의 없었으며, 복식수업으로 인해 학습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과 돛자리를 들고 나무 밑 그늘로 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개울에 가서 가재와 플라나리아를 잡으며 생태 학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교생 야영 활동도 하고 동네어른들을 모두 모시고 운동회 겸 동네 잔치, 작품전시회, 문집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을 틈틈이 사진 찍어 주며 행복한 3년을 보냈습니다. 당시 맡았던 6학년 16명중 7명이 중학교 배치고사 10위권에 들어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시흥에 오게 된 1998년 3월, 67학급의 대규모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직전 근무한 소규모 분교와는 하늘과 땅차이인 소래초에서 1학년 14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으나 적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1년이 지난 후 부터 연구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수업에 대한 열정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가 연구부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흥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초와 송운초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주무부장으로 4년간 재량활동과 독서교육 시범교육청 중심학교를 운영하여 경기도 전체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활동과 강의활동 참여, 경기도의 생활 개발 활동, 시흥 지역의 사회과 탐구학습자료 개발 등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며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의 교과연구회 활동을 5년 이상 자발적으로 이끌어 오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교단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했던 순간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흥에서 근무하는 19년 동안 시흥교육의 산 증인으로 교육사랑을 실천하였고, 시흥시청과의 연계 교육 실천 등 이를 통해 모범공무원 선정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교단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곳이다.”

코팅하여 칠판 옆에 늘 게시하였던 문구입니다.

“엄지샘”

친근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활용하였으며 아이들에게 불리워진 저의 닉네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고자 다짐했던 약속이자 열정을 나타낸 별명입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교감이 되어!

26여년의 교사생활을 마치고 교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시절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고민과 갈등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민원, 학생들의 빈번한 안전사고, 생활지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의 학생지도, 교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학교분위기, 행정실과의 업무 줄다리기 등 초임 교감으로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 버겁게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힘이 되긴 했지만 저의 결정이 현명한 결정인지 자신이 없었고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마다 교장선생님과 의논하며 관리자로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멘토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 경영자의 민주적인 마인드와 소통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든 주의 깊게 경청하며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무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해서 4개월 정도 매주 2~3회씩 수업을 참관하거나 직접 수업을 하면서 수업방법과 생활지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급이나 발생 학급을 대상으로 총 20여 회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바위초 근무시에는 독서·책쓰기 동아리를 1년간 직접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글쓰기 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며 책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행복한 진말초등학교의 교장이 되기 위하여!

교사,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열정으로 지내 온 시간들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밑거름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진말초등학교의 지혜동이 학생들을 존중하며 꿈이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학교를 경영하며 교사와 학부모님들께 만족을 주고 자랑이 되는 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진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21세기 주인공을 키우는 꿈자람 행복학교를 만들겠습니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 갈 때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함부로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今日我行跡 (금일야행적)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거’는 지난 30여년 교직에서 보낸 시간동안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가끔씩 꺼내보는 거울 같은 글입니다. 학생들과 동료들이 따라 걷는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바르고 소신있게 걷고 싶은 저의 다짐이며, 실천하는 교장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